



# 한국틴스타

2015년 6월  
제42호

www.teenstar.or.kr

## “책임(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

천 동 주

제120차 워크숍 수료(마산)

**학생 :** 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데 그런  
것 지키는 사람이 오데 있습니까?

**나 :** 요즘 시대가 뭐?

**학생 :** (눈을 흘기며) 에이~

군더더기가 없는 요즘 경상도 남학생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이렇듯 대화는 짧게 끝이 난다. 경상도 남학생들이 이렇하다고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성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솔직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학생이 있는 반면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하는 학생과 요구하지 않은 결백(?)을 주장하며 화를 내는 친구도 있다.

어른이라 한들 어찌 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성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사람처럼 학생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성(性)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면 성과 관

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몸에 대한 성장과 변화, 관심과 고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이 “어른들은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요.”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우리 어른들도 너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며 지금도 우리는 성(性)적인 존재란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성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때의 기분이 썩 좋은 기분으로 다가 온 것 같지는 않다. 누군가 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게 찾아온 첫 손님은 죄책감이었다. 성에 대하여 느끼는 첫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고 싶다. 나의 첫손님은 수년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였기 때문이다.

학창시절부터 혼인 전까지는 성이라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속된 말로 잘라내고 싶을 만큼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성이라는 것을 **성욕**에 국한하여 생각했었다. 살아가면서 여성과 남성, 성

행위로서의 성, 생명 탄생을 위한 성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과 관련된 경험 등을 접하지만 성적 존재로서의 근본적인 자각에는 무지했으며 사실 그러한 자각에 대한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였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제120차 한국틴스타 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면서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이성적·영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성을 이해하고 성 정체성을 정립하도록 돕는다**는 틴스타의 모토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 닿았다. 그리고 **생식력 자각**이라는 화두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새로워지는 성적 존재로서의 성장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우리 성(性)의 주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성의 본향은 하느님이시며 주신 분에 의해 담겨진 성의 주소는 우리의 몸이다.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우리에게 앞서 학생이 말했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 한다. ‘한없이 자유롭되 책임은 말라고.....’

“Responsibility (책임)”은 Response(응답하다)와 Ability(능력)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한다.

자신의 성에 대하여 성적 책임을 가진 성적인 간은 자신의 성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며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자신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성의 본향이신 하느님께서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신명 11, 26)”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서 성적 자기 결

정권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모든 성현(聖賢)들은 말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야 비워내고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 내 안에 너무나도 당연히 존재하는 성이기에 그동안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요즘의 시대는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성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채우려 한다.

과거에는 성이라고 하면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우며 은밀한 것으로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삼가야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성교육의 필요성과 개방성이 강조되어 더 이상 은밀하게 볼 것이 아니라 열린 장소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 되었다. 성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옮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모두 올바르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성이 세상에 오픈됨으로써 저주의 선택이 축복처럼 포장되어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방송에서 성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다하여 그것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한 의지를 내면화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음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총체적 관점에서의 성적인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길을 잃었을 때 마음 속 내비게이션을 켜 보라!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면 지체 없이 멈추고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혀를 굴러가며 마음에 새기고 외쳐보자.

**“Responsibility!”**

#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로마서 6:28)

하 영 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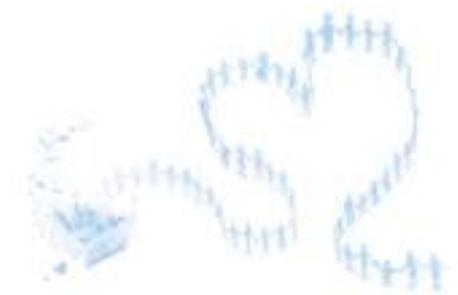
제112차 워크숍 수료(울산)

2014년 2월, 본당 주일학교의 새 학기 준비가 한창일 즈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 보자고 하시는 본당주임신부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저기 성교육에 대해 알아보던 중, 무작정 틴스타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한국본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서 틴스타와의 첫 인연은 시작되었다. 학생들에게 틴스타 수업을 해 줄 수 있는 교사의 파견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당시 울산 지역에는 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을 수료한 교사가 없어 교사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당의 전후 사정을 설명 드리면서, 본당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틴스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그야말로 때를 쓰다시피 부탁드리게 되었다.

이제 울산 틴스타의 시작을 위해 한국 틴스타의 체계적인 지원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었다. 우선 2014년 3월 28일 울산의 병영성당을 중심으로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소개특강이 있었다. 본당 주임 신부님의 열의와 약 40여명의 본당 부모님이 보여

준 관심은 더 이상 병영성당이라고 하는 한 본당만의 일이 아닌 울산의 일로 자리매김하는 뜻을 내기에 충분했다. 이런 관심과 열망으로 8명~10명의 본당 자모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성’ 수업이 먼저 열리게 되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의 총체적인 수업이 끝날 무렵, 대구에서의 112차 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일정이 다가왔고, 본당 자모회장을 비롯한 두 명이 대구 워크숍을 수료하게 되었다.

워크숍을 참석하였다고 해서 틴스타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처음 막막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뭔가 진행된 듯 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 닿았던지, 그 해 9월부터 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 두개반의 틴스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울산대리구의 주관으로 본당 주일학교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118차(울산최초의^^) 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이 본당에서 열리기에 이르렀다.



모든 워크숍 참석자들이 세례를 받은, 그리고 대부분이 현재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 보니, 평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워크숍 기간 내내 배우고자 하는 열기는 대단하였다. 워크숍 후 이어진 심화과정도 두 개 반이 개설되었고, 실질적인 틴스타 수업 진행을 위한 교안 연구 모임을 가지기로 자발적으로 의논이 되어, 5월말부터 매월 1회 함께 모여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틴스타 수업을 위한 교안 개발 스터디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울산에서 진행되어온 틴스타의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니, 그야말로 감동과 감사의 연속이었다. 막막하기만 하고 캄캄했던 첫 시작으로부터 울산에서의 첫 틴스타 워크숍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로마서 6:28)라는 성경구절을 생각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만나게 된 한국 틴스타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알게 된, 그분들의 사랑, 생명, 책임을 향한 노력과 끊임없는 헌신에는 절로 고개가 숙여질 따름이다.

2014년 말 고등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틴스타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여학생이 해주었던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다. 틴스타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오늘, 부활 제6주일의 복음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요한 15:17)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랑과 생명을 향한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도록, 틴스타가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 동안 울산 틴스타의 시작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신, 한국 틴스타의 변수운 바울라 수녀님과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 그리고 김종남 스테파노 본당 주임신부님, 울산대리구 청소년사목국 박진성 비오 신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막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울산 틴스타 교사들의 발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 믿도 끝도 없는 확신으로 만난 자모들 ~

정은주 수녀

인보성체수도회 / 제57차 워크숍 수료

저는 가톨릭교회 수도자이고, 현재 서울대교구 구로2동 성당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당 안에서 주로 만나는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인데,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머니들도 만나게 되지요. 특히,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의 어머니에게는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면담을 통해 그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정선화(가명) 자매님도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첫영성체를 하게 된 아이는 둘째였고, 위로 한명, 아래로 3명의 그러니까 5자녀를 둔 요즘 흔히 보기 드문 어머니였지요. 아이들 아빠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고, 신심이 깊어 성당에 늘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길보기에 다복하고, 화목한 성가정을 이루는 예쁜 가족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느낌표가 먼저 울리고 그 다음으로 경제사정이 떠오르시겠지요. 정선화 자매님의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경제수준이고, 아빠가 혼자 벌여 오시는 수입으로 알뜰히 자녀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이 가정이 제가 다시 틴스타 본부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선화 자매님은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갖고 있었고, 콘돔으로 피임을 해왔지만 번번이 임신이 되어 다섯 자녀까지 두었던 것이고, 지금 세 살 된 막내아들은 낙태를 결심하고 베드에 눕기까지 했답니다. 병원에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임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부부관계를 갖고도 늘 임신인지 두려워해야 하는 자매님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고, 점액관찰법이 답이 될 거라는 믿도 끝도 없는 확신이 들었지요.

하지만 확신은 확신이고, 첫영성체식이 끝난 후 관심을 보인 5명의 어머니들로 만들어진 그룹의 진행은 난관을 거듭했습니다. 우선 교사로서 제자신의 부족함이 많았고,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중도하차할까봐 늘 노심조사하며 하느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점액관찰과 남편과의 소통이 잘 되는 자매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매님도 있었고, 본인 선에서 따라오기는 하지만 주위에 알리는 것은 어려워하는 자매님도 있었고, 신앙적 가치와의 부딪힘을 느끼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만남을 거듭해가면서 제가 먼저 변화되고 깨달아가는 부분을

겸허히 나눌 때 자매님들의 공감과 변화의 의지를 얻어낼 수 있었고, 또한 어떤 부분은 자매님들로부터 배우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선화 자매님의 변화는 하느님께서 이 일을 원하고 계셨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기에 자매님의 소감을 그대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저는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다섯 자녀를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낳았기에 자연출산조절은 어렵고 두려운 일 그 자체였고요,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하는데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했어요. 혼인교리를 했지만 제대로 된 점액 관찰법을 배운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세정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더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냄새나 색깔, 형태에 따라 배란일도 더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특히 세정제를 많이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정확한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현재 저희 부부는 감정기록과 점액관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신중해지고 배려해 준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점액 관찰법을 신뢰하기가 어려웠는데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심 깊고 가정적인 이 아빠도 전엔 “(피임은)당신이 잘 해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틴스타 경험 후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좋은 예를 저도 경험하게 되어 무척 감사했지요. 이번 틴스타 그룹을 계기로 또 다른 총체적인 성 그룹이 생기거나, 중등부 자녀들의 틴스타 그룹에 대한 요구가 생겼으면 했는데, 이미 1년 계획을 갖고 있는 주일학교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들을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모으기가 쉽지 않고 본당이라는 현장의 특성상 지도 신부님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수명이 길게 갈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일까요? 틴스타 소식지에 실을 이 글을 쓰다 보니, 올해 첫 영성체 대상 어머니들을 모아 다시 총체적인 성 그룹을 만들어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생기니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거룩함’에 가리워져 속얕이 하는 이들이 있는 현상이 본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성의 거룩함’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고 싶습니다.

# 한국틴스타 소식

## ★ 틴스타 소개특강

3월 : 서울대교구 발산동 성당 자모회,

4월 : 인천교구 일신동 성당, 인천교구 가나혼인강좌팀

5월 : 가톨릭교리신학원(서울), 서울대교구 오류동 성당, 대구대교구 구암 성당

## ★ 틴스타 심화과정

마산 : 제120차 워크숍 이후 2개반 개설

### 서울

- 서울교사들의 봄나들이가 4월12일에 있었다. 틴스타 대표 수녀님과 지도 신부님 두 분이 함께 했던 18명의 서울틴스타 교사들은 인왕산 둘레길을 걸으며 친목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모임을 가졌다. 서울틴스타는 앞으로 봄, 가을, 겨울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 대구

- 틴스타 소개모임으로 효성중학교 셀희 동아리 1,2,3학년(64명/남,녀)을 대상으로 4월 15일, 틴스타 교사5명이 파견되어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2학기에도 2~4 그룹을 위해 모임 의뢰받기도 했다.  
- 교안연구모임으로 본부에서 파견된 교사와 함께 4대리구(포항)선생님들도 초대해서 3월부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인천

- 월1회 정기모임을 하며 중학교 교안스터디를 병행하고 있다.

##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 마지막 날 오후 1시30분
- 날짜 : 7월 28일(화) ~ 30일(목), 8월 25일(화) ~ 27일(목)  
9월 18일(금) ~ 20일(일)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2)755-2629, 010-7440-8687



## 새내기 틴스타 울산과 마산



울산 틴스타의 첫걸음.  
2014년 3월 소개특강



울산 틴스타 수업 맛보기.  
2014년 4월



울산 틴스타 워크숍(단체사진).  
2015년 1월



울산 틴스타 워크숍(연극).  
2015년 1월



울산 틴스타의 미래를 위해.  
2015년 4월



마산 가정사목부와 틴스타의 첫 만남.  
2014년 11월



마산 틴스타 두 번째 워크숍. 2015년 3월



마산 성지여고 6개 반 수업 진행 중.  
2015년 4월~

## 중요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종교 단체	광주	비아 성당(중)	김영환 선생
		비아 성당(중)	이명호 선생
		비아 성당(총)	손숙희 선생
		비아 성당(총)	장남희 선생
	대구	황성 성당(총)	전수영 선생
기관	경기	부천 시흥 은행동 생협(총)	조정옥 선생
	서울	서울학습도움센터(총)	강정애 선생
		복자여명의 집(새터민) (교)	이필숙 선생
	인천	선민지역아동센터(중)	김기환 선생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중)	김석환 선생
		청소년쉼터별마루(교)	안병욱 선생

## 진행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작일
학교	광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A	고선희 선생	2015. 4.13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교)B	고선희 선생	2015. 4.14
	대구	경화여자고등학교(교)	김태연 선생	2015. 3.25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B	백민주 선생	2015. 3. 3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B	김정숙 선생	2015. 3. 4
		성의여자고등학교(교)	김미영 선생	2015. 3.21
		성의여자고등학교(교)	노진화 선생	2015. 3.21
		성의여자고등학교(교)	홍영이 선생	2015. 3.21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박광훈 신부	2015. 3.14
		원화중학교 동아리(중)	김외택 선생	2015. 4.14
		원화중학교 동아리(중)	전수영 선생	2015. 4.14
		달서고등학교(교)	백민주 선생	2015. 4.10
	대전	대전가톨릭신학대학교(총)	하정용 신부	2015. 3.13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교)A, B	김미현 선생	2015. 3.16
		성지여자고등학교(교)A, B	이연복 선생	2015. 3.16
		성지여자고등학교(교)A, B	김미랑 선생	2015. 3.25
		성지여자고등학교(교)A, B	정은선 선생	2015. 3.25
		성지여자고등학교(교)	강미정 선생	2015. 3.17
		성지여자고등학교(교)	김영은 선생	2015. 3.17
	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총)A, B	김혜정 선생	2015. 3. 2
부산가톨릭대학교(총)		조명주 선생	2015. 3. 6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작일
학교	서울	하비에르국제학교(중)A	고정민 선생	2015. 1.23
		하비에르국제학교(중)B	고정민 선생	2015. 1.19
		하비에르국제학교(중)	김성철 선생	2015. 3.27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강정애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고정민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김영숙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경숙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미소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소영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진경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정해리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정혜경 선생	2015. 3.19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한명례 선생	2015. 3.19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중)	하정용 신부	2015. 3. 5
		무학중학교(중)A, B	김길환 선생	2015. 3.17
		무학중학교(중)A, B	박진경 선생	2015. 3.18
		무학중학교(중)A, B	정해리 선생	2015. 3.18
	충북	매곡고등학교(고)	길혜선 선생	2015. 3.19
종교 단체	광주	광주대교구 두암동 성당(중)	문현숙 선생	2015. 3.22
		광주대교구 두암동 성당(중)	신동일 선생	2015. 3.22
		광주대교구 두암동 성당(고)	김금남 선생	2015. 3.22
		광주대교구 두암동 성당(고)	이창훈 선생	2015. 3.22
	대구	대구대교구 내당 성당(중)	김병건 선생	2015. 3.18
		대구대교구 내당 성당(중)	김외택 선생	2015. 3.24
	부산	병영 성당(고)	이정익 선생	2015. 3.28
	인천	일신동 성당(중)	강명선 선생	2015. 4.12
		일신동 성당(중)	채현인 선생	2015. 4.12
		일신동 성당(고)	이병주 선생	2015. 4.12
		일신동 성당(고)	김기환 선생	2015. 4.12
		일신동 성당(중)	황윤정 선생	2015. 4.12
	기관	대구	청소년교육상담센터(중)	이태화 선생
기타	대구	범어동 중학생 동아리(중)	김영건 선생	2015. 3.14
		창원 키즈카페 풍당풍당(중)	임순선 선생	2015. 3.16



# 알림방

## ☆ 2015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종료 현황

### 제120차 마산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천주교마산교구 가정사목국
- 기간 : 4월 14일(화) ~ 17일(금)
- 장소 : 천주교마산교구청

## ☆ 2015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행 현황

### 제121차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7월18일(토)~19일(일), 25일(토)~26일(일)
- 장소 : 노동사목회관(보문동)

### 제122차 포항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간 : 8월22일(토)~23일(일), 29일(토)~30일(일)
- 장소 : 대구대교구 4대리구청(포항)

### 제123차 인천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생명사랑운동본부
- 기간 : 9월12일(토)~13일(일), 19일(토)~20일
- 장소 : 인천교구 노동자센터 4층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틴스타는  
후원하신분과 틴스타교사를 위해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021-644868
-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5년 6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55-2629

발행인 : 변수운 바울라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